

■ 지식 정책 동향(2000. 6. 16. ~ 7. 15.)

<p>정통부, 지방에 소프트타운 조성(6. 16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보통신부는 지방의 주요 도시에도 소프트타운을 조성해 유망업체의 수도권 이전을 억제하고, 지역 SW 산업의 자생 기반 구축을 지원키로 함 ▶ 올해 중에 1개 지역을 선정해 지역 소프트타운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
<p>정통부, 산자부,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 (6. 21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보통신부는 「디지털 산업단지」 사업을 통해 15개 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, 중소기업의 e-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추진중 ▶ 산업자원부는 안산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을 1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「산업단지 포털 구축 사업」을 추진중임
<p>산자부, 소프트물류 기반 구축 (6. 19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산업자원부는 물류 표준화, 정보화 등 소프트물류 혁신 기반 구축사업에 2002년 까지 1,827억 원 투입 계획 ▶ 고비용, 저효율 물류구조를 개선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오프라인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물류 표준화 347억 원, 정보화 360억 원, 공동화 1,1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
<p>산자부, B2B 구축 확산 추진(6. 20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산업자원부는 「전자상거래 확산 위원회」에서 지역산업 육성과 공공부문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지역 산업체와 지방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B2B 구축을 확산시키기로 함 ▶ 전자상거래 구축이 서울 등 일부 지역,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, 지역별, 기업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임
<p>산자부, 생물산업 지원 계획 수립중 (6. 27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산업자원부는 인간 유전자 정보인 게놈 지도 초안의 발표를 계기로 국내 생물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 체제 구축 및 법률 제정을 실시하기로 함 ▶ 이와 함께 「생물산업원」 설립, 전국 5개 지역 생물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생물 산업 기술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중임
<p>산자부, 산업기술프로 젝트 21 추진 (7.11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산업자원부는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「산업기술프로젝트 21」 정책을 9월부터 본격 추진키로 함 ▶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6개 방안으로, 기술혁신형 기업 조직 형성, 지역 혁신 역량 강화, 튼튼한 기술 인프라 구축, 전략적 연구 개발 체제 정립, 사업화 촉진 및 기술 문화 창달, 핵심 산업 기술력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음

■ 생물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

□ 추진 배경 및 내용

- 산업자원부는 생물 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, '생물산업원'을 설립하여 체계적 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임
 - 산업자원부는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"생물 산업 발전 종합 대책"을 발표한바 있음
 - 또한 6월 26일 인간 유전자 지도가 공개됨에 따라 생물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물 산업 기술 개발 5개년 계획(2001~2005)을 수립중임
 - 올 하반기에 "Bio Fair Korea 2000"을 개최하여 생물 산업에 대한 국민 의식 제고, 2003년까지 105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 업무와 유전자 변형물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할 '생물산업원' 설립 등 계획

□ 추진 효과

- 21세기 리딩 산업인 생물 산업 발전 정책이 마련되어 민간의 적극적 투자가 전망됨
 - 21세기에는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이 접목된 생명정보산업이 산업부문의 성장을 이끌어갈 전망이다
 -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인 기술력과 산업 규모가 취약한 국내 생물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물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

□ 추진 과제

- 지식 산업이라는 생물 산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기술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집중 육성하여야 함
 - 생물 산업은 지식 산업으로서 단기간 내에 기술 축적이 어렵고, 지역별 또는 인종별로 생물학적 특성이 다를 수도 있음
 -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산업화 가능성이 높고, 투자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

■ 신광철 연구위원 kcshin@hri.co.kr ☎3669-4036